

미·러·홍콩, 자국민에 여행 자제 권고...기피국가 된 한국

홍콩 1만2천명 가입 600개 단체여행 상품 취소
일본, 한국 승마대회 선수단 파견 무기한 연기
6월들어 외국인 관광객 4만5천명 한국행 취소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한국여행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자국민들에게 한국여행 자제를 공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일(현지시간) 한국여행 시 '통상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CDC에 따르면 지

난 5일자로 발표한 외국여행 시의 건강 관련 공지문에서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을 3단계인 공지 등급 중 가장 낮은 '주의'로 분류하며 통상적 수준의 주의를 요망했다. 이와 함께 CDC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발병하기 14일 이내 기간에 한국의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 심한 호흡기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미국 보건 관계자들이 즉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통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러시아 관광청(로스투리즘)도 이날 자국민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위험이 있는 한국과 중동으로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관광청은 이날 발표한 주의문에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국가와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국도 이날 한국에 대해 홍색(紅色)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보안국의 여행 경보는 '황색', '홍색', '흑색' 등 3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인 홍색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기존 여행 계획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콩 여행업협회인 여유업의회(旅遊業議會)는 한국에 대한 홍색 여행경보 발령을 고려해 이달 내 한국 단체여행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여행객 1만2000여 명이 가입한 600여 개 단체 여행 상품이 취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과 거리가 있는 부산 등으로의 크루즈 여행은 유지된다. 또한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

소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마카오 정부도 전날 메르스에 대한 대응 단계를 '경계'급에서 '고도경계'로 격상한 뒤 마카오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승마연맹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승마대회에 중학생 이상의 선수와 임원 등 약 30명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행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월에만 4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한국 기피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2만600명이던 한국행 취소 외국인 관광객은 주말인 5~7일에만 2만5000명에 달했다. 한편 외교부는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주의 공시를 하는 데 대해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메르스 발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각국이 자국 국민에 대해 내리고 있는 여행주의보나 안전 공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내용이 있다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환자 안내 청원경찰 10분만에 감염

짧은 시간내 감염 충격...충남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

서울아산병원 20대 환자 발생

보건당국이 9일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중 서울아산병원에서 감염된 92번 환자(27)는 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청원경찰이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92번 환자는 지난달 26일 응급실을 찾은 6번 환자(71·사망)와 접촉했다. 당초 병원은 6번 환자의 내원 시간이 10분 정도로 극히 짧았다고 밝혔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 병원 체류시간은 28분 정도로 나왔다. 6번 환자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 의료진과 간단한 문진(문답 진료)만 받은 후 병원을 떠났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20대 보안요원은 약 10분 정도 6번 환자와 접촉한 것만으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뜻이 된다. 병원에 따르면 92번 환자는 당일 근무 후 퇴근을 했고 이튿날은 비번이어서 출근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아산병원에 6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보안요원과 의료진 등 총 8명을 격리하도록 통보했다. 92번 환자는 이후 고향인 충남 공주로 내려가 지금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8일 오전부터 증상을 보였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이날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관계자는 "격리 기간에 접촉 의료진에 대해서는 세 차례 자체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92번 환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충남지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는 이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메르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기간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메르스가 처음 발병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10년간 약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본 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의학전문지 '랜셋'(Lancet)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혈액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영자지 '더 내셔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 결과 15명에서 메르스 항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은 농촌지역이었으며, 특히 낙타와 일하거나 낙타고기를 취급하는 주민들의 경우 140명 가운데 5명 꼴로 메르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사태 파악 메르스 합동 조사를 위해 입국한 후쿠다 게이치 WHO 사무차장 등 방문단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 장욱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사우디, 10년간 4만명 감염

獨 연구팀 "140명중 5명 꼴 항체...대부분 모르고 지나가"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메르스가 처음 발병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10년간 약 4만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본 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의학전문지 '랜셋'(Lancet)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혈액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영자지 '더 내셔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 결과 15명에서 메르스 항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은 농촌지역이었으며, 특히 낙타와 일하거나 낙타고기를 취급하는 주민들의 경우 140명 가운데 5명 꼴로 메르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메르스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과거에 메르스에 감염된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인구 약 2730만명 가운데 4만명 정도가 지난 10년간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메르스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드로스텐 교수는 "항체는 평생 지속되지 않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약 5~10년간 검출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처음 보고된 2012년 6월 이후 이달 1일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는 1016명으로, 이 중 562명이 완쾌됐고 44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메르스 보다 심각한건 '결핵'

허대석 서울대교수 "결핵은 공기 전염...환자비율 OECD 1위"

한국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질환은 의학적 관점에서 결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메르스는 공기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대표적 전염병이어서 결핵균 보균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결핵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사회 속의 의료'에 올린 '2009년 신종플루의 교훈과 메르스'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호스피스실 실장,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장 등을 거쳤다. 허 교수에 따르면 객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메르스보다 더 심각

한 질환은 결핵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미 오래전 일이다. 여러 결핵약을 써도 듣지 않는 이른바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도 OECD 국가들중에서 단연 1위다. 2013년 전국적으로 3만6089명이 결핵환자로 진단받았다. 그해 1년간 2466명이 사망했다. 매일 100명이 새로 감염되고 6~7명이 결핵으로 숨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결핵이 공기로 전파된다는 점인데도 국민 대부분은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는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뿜어내는 비밀(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제한적으로 전파된다. /연합뉴스

WHO 합동조사단 활동...13일 결과 공개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전날 입국한 WHO 조사단은 9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장욱주 복지부차관을 예방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메르스 역학조사·감염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을 맞이할 예정이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일일 상황점검회의가 늦어져 참석하지 못했다. 후쿠다 게이치 WHO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한국 측 전문가와 만나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합동 조사단은 13일에 합동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보조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